

## 2012년도 사업계획 확정



▲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0월 26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.

###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원안 의결
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(이사장 김명국)은 지난 10월 26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정해진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, 강용삼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사무관 및 전국 대의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

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원안대로 의결했다. 또한 조합원 운영위원 선임(안)은 운영위원장단에 위임했다.

이날 의결된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의 주요 골자를 보면, ◆2012년 경영목표인 “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보증·공제기관”의 기치 아래 △조합원의 가치 증진 △보증·공제사업 최적화 △미래 성장기반 강화

**“김명국 이사장, “보증제도 개선 △담보어음 징구제도 폐지 △보증해제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조합원 서비스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
부실보증 억제,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조합을 건실하게  
경영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”**

△선진 경영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사업 ◆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12년도 예산을 △불요불급(不要不急)한 예산 삭감 △보증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비용 긴급예산에 편성 △307억원의 수익 목표 △63억원의 당기순이익 등을 추정했다.

**김명국 이사장 개회사 “변화된 환경에서 조합원을 위한 새로운 역할 모색 노력” 강조**

이날 총회에서 김명국 이사장은 “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보증금 청구가 급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,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왔다”면서 “△보증제도 개선 △담보어음 징구제도 폐지 △보증해제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조합원 서비스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”고 밝혔다.

김명국 이사장은 또 “조합은 중장기 경영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고객만족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”면서 “부실보증 억제,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조합을 건실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이와함께 “보증시장개방 및 겸업제한 폐지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



▲ 김명국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“중장기 경영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객만족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고, 변화된 환경에서 조합원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, 끊임없는 경영개선으로 2012년에도 조합원의 가치를 증진하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밝혔다.

**정해돈 회장 축사 “고객만족 경영에 만전을 기해 고객 감동과 미래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발전” 당부**

정해돈 회장은 축사를 통해 “지난 3월 협회 회장에 취임하며,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구조 다변화, 재무구조 개선, 그리고 최고의 명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”면서 “이에 따라 지난 5월 협회와 조합

정해돈 회장, “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,  
고통을 감내한 만큼 더욱 더 성숙하고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이며,  
지금의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기회로 변화시켜야 한다”고 강조



▲ 정해돈 회장은 축사를 통해 “총회를 계기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속에서 고객만족 경영에 만전을 기해 고객 감동과 미래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”고 당부했다.

은 워크숍을 개최해 신규사업 발굴,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 조합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”고 밝혔다.

정해돈 회장은 또 “지난 상반기 동안 조합은 조합원사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명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”면서 “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, 고통을 감내한 만큼 더욱 더 성숙하고 경쟁력

있는 조합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정해돈 회장은 마지막으로 “신규사업 개발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함은 물론이고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조합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”고 당부했다.

###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업무보고

한편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보증제도 개선(가설공사 계약보증 해제 개선, 하자보수보증서 선 발급기간 연장 등)
- 신용운영자금 인터넷 신청제도 확대
- 전자약정 활성화 적극 추진
- 담보어음 징구제도 폐지
- 보증해제대상 정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개시